

축하중 11톤 차량이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교량 등의 수명이 짧아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협조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시민의 안전과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전을 위하여 과적발생 근원지 사전예방 활동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하)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공회사 및 운전자께서 과적방지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로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제한중량 초과 등의
불법운행에 의한 도로시설물 훼손으로 과도한 도로 보수 유지비 및 단속인력·장비 투입 등
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중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 및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적 안하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법 제59조 제3항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 적재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